2015년 10월 소식지

네팔선교 동역자 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추석(한가위)명절은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는지요? 저희 가족은 양가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떨어지는 낙엽과 코스모스, 풍성한 과일들을 보니 정말 오랜만에 한국의 가을을 접합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추석을 보내고 3주간 네팔에 다녀왔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네팔, 그러나 인도에서 국경을 폐쇄하여 물자공급이 안되는 극한 상황가운데

있는 네팔 땅을 위해 늘 사랑과 기도로 동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네팔 상황

네팔은 왕이 다스렸던 왕국이었습니다. 2007년에 왕정이 무너지고 2008년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8년이 지나 지난 9월 20일 헌법을 만들어 공포하였고, 네팔 헌법에 문제 제기를 한

인도에서 국경을 폐쇄하여 인도에서 오던 모든 물자들(기름, 가스 등)이 한 달이 넘도록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행기에 넣을 기름이 없어서 직항인 비행기가 경유지에 들러 기름을 넣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식당과 호텔도 가스가 없어서 문을 닫고 힘없는 네팔사람들이 지진에 이어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인도가 국경을 열어주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유소에 줄 서 있는 차량들

차에 메달린 시민들

가스가게 앞에 늘어선 시민들

■ 지진 피해 교회 방문

지난 4월 25일과 5월 12일 지진으로 네팔에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상민 미주한인총회장님과 엄총무님께서 무너진 마차푸차레 교회, 침례교 신학교와

저희 사역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신두팔촉에 있는 알파 침례교회는 6명(성인3, 어린이3)의 성도들도

사망했으며 완파되어 임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개건과 네팔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마차푸차레 침례교회(포카라)

알파 침례교회(신두팔촉)

■ 목회자세미나 준비 모임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세계 여러나라에 선교하고 계시는 정태회 목사님께서

내년에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를 위한 준비와 빛교회 50주년 기념식을 위해 네팔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각 교단 준비위원들이 잘 세워지고 협력하여 잘 준비되어지도록 손모아 주세요.

시몬 빤데이 목사님

리빙 침례교회 담임목사님과

네팔 각 교단 목회자들과

■ 카트만두 한인교회 기공예배

지난 10월 11일 카트만두 한인교회가 건축 부지를 구입하여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트만두 한인교회는 네팔에서 하나 밖에 없는 초교파 교회이며 대부분의 성도가 선교사들입니다.

각 교단에서는 만불씩 건축헌금을 했는데 저희 침례교단만 헌금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카트만두 한인교회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 지금 바로 3 분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얼마 남지 않은 안식년 마무리와 다음 사역준비를 잘 하도록
2.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네팔상황(모든 물자 공급 중단 사태)을 위해
3. 네팔 선교를 위해 동역하는 교회와 동역자 가정을 위해
4. 포카라 너우다라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인턴선교사 부부(박예진, 비끄럼) 건강을 위해
5. 개척된 교회들 부흥과 성도들 믿음 성장을 위해
6. 고아원 아이들이 주신 달란트대로 주님앞에 쓰임받는 일꾼되도록
7. 네팔 교회 지원사역(염소분양, 성찬기 보급, 목회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8. 지진 피해를 입은 성도들 가정에 임시가옥과 교회 재건이 이루어 지도록
9. 네팔 침례교 신학교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 모금되도록

후원 안내 : 예금주 : 침례교 해외선교회 (전훈재) 해외선교회 재정부 전화 02-3775-4471

목적 계좌 : 990-007954-330 (외환은행) : 고아원 및 신학교후원, 교회 건축, 염소분양, 성찬기, 지진피해복구

일반 계좌 : 181-04-01157-305 (외환은행) : 생활비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 : 010 8933 4891 , 집 전화번호 : 070-8249-4891 카톡 아이디 : inepal

네팔선교를 위해 함께 동역하실 동역자(기도, 물질후원)보내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2015년 10월

전훈재, 유연화 (하예, 하선, 하민) 가족 올림